

천정배 호남 신당론 견제...재보선 수습·당 화합 이끌어야

■ '이종걸호' 새정치 향후 당 운영과 과제는

강성 기질 '부패정권심판' 對與 강공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7일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원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대어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 4·29 재보선결정 참패의 충격에서 당을 수습해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우선 흔들리는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당내 고질병을 지적되는 계파 갈등을 해소, 당의 화합과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표와 '투 톱'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 정권교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재보선 패배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이를 통한 고강도 쇄신작업, 총선 대비 전열 정비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전 같지 않은 호남 민심 수습과 광주에서 무소속 당선,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신당론'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중대 과제다. 여기에 이 원내대표가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자칫 문 대표를 포함한 '친노' 지도부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여당과의 협상과 투쟁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맡을 정도로 뚜렷한 투쟁노선을 견지해 온 강경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 체제 이후 당이 내세운 '유능한 경제정당론'보다는 '부패정권심판론'을 토대로 여당에 강력한 날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성완중 파문의 여파 속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며 대어 투쟁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인 대어 협상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1일부터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신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의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혜영, 박지원, 박기춘, 전병헌, 박영선, 우윤근 의원 등 전직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전라지문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노의 반격·친노 견제론 작동 文과 '불안한 동거' 시작됐다

■ 이종걸 당선 의미

비노·비주류 4선 중진인 이종걸 의원의 당선으로 귀결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은 4·29 재보선 전패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문재인 대표 당선 후 소외됐던 비노 진영이 '문재인 책임론·견제론'을 매개로 대내적으로 결집하면서다.

이로써 재보선 패배 이후 비노측의 문제 제기로 격화됐던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커졌지만, 비노 진영이 점차 당내 입지를 키워가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당내 역학구도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계파간 긴장관계도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노-비노의 대립 구도 속에서 대척점에서 있다 '투톱'으로 만난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비노·비주류가 지지한 이종걸 의원이 친노·비주류 지원을 받은 최재성 의원을 5표차로 따돌리며 '신승'했다.

1차에서 호남 출신 비노인 김동철 의원으로 분산됐던 비노 표가 결선에서 대대적으로 문진 결과이다. 이번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친노·비주류로의 쏠림 현상에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비노측이 대대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자리를 거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등 비노 유력인사들도 이 원내대표 지원을 매개로 힘을 합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안 전 대표가 제안했던 '합의추대론'도 이 원내대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한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5명의 후보 난립으로 대혼전 판세가 이어진 가운데 직계 후보를 배출하지 않은 친노 진영은 1차에서 최 의원과 조정식의 원으로 나뉘었다. 2차에서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으나 재보선 패배 후폭풍이라는 벽을 뛰어넘진 못했다. 1차 조 의원을 밀었던 일부 중립계파 표도 결선에서 이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무산 꼬여버린 정치권

與, 당·청 잇박자에 김무성·유승민 '투톱 리더십 위기'
野, '우왕좌왕' 지도부 정치력 부재...對與강경 드라이브
靑, '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後 국민연금 논의' 고수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의 국회 분회의 처리 무산 후폭풍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총격파가 가장 큰 곳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아래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부상하고 있다.

당장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잇박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동안 봉합되는 듯했던 계파 갈등도 재연될 조짐이다.

우선 야당과 지난한 밀고 당기기 끝에 간신히 실마리를 잡은 접점이 당내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당 지도부로서는 뼈아프다.

당내에서는 이번 협상을 놓고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어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박(진박근혜)계 의원들의 지도부 비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당내에서는 '성완중 리스트' 여파로 움츠려 들었던 진박계가 본격적으로 김무성·유승민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청 관계의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협상의 큰 흐름은 파악해 왔는데 막판에 협상내용을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무산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표는 지난주 협상 타결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내가 (소득대체율 50% 인상율) 보증하겠으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위로 그쳤다.

새정치연합은 대어 강경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문재인 대표가 직접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 여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당 차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어 전면전에 나섰다.

특히, 문 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박 대통령의 '한마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재보선 기간 '성완중 사태'를 고리로 했던 대역전선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기폭제로 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후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은 ▲개혁의 근본 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故 김대중대통령 묘역 참배한 천정배 "DJ 정쟁에 이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7일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쟁에 이용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희호 여사의 '김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정쟁의 논리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이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언급하며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취지 같은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실정치를 하는 이상 개혁과 통합을 슬기롭게 조화시키고 제대로 하는 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는 게 정치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현충원에 "대통령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적힌 화환을 보냈고 방명록에는 "정의로운 통일북지국가를 향해 개혁과 통합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천 의원은 또 향후 정치 행로에 대해 "크게 보면 정치세력화를 힘껏 하겠다"고 밝히고 복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구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복당이 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2년 후 대선과 관련, "(야권이) 분열돼서 기득권에 어부지리를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게 제 분명한 원칙"이라며 "야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진보세력이 힘 합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릭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음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NAVER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전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우지녀 남성' 희망 28-48세</p>		<p>임페리얼 클럽</p> <p>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p> <p>02) 521-4405</p> <p>호남 지사 (063) 275-7766</p>